

【 2008 다다아트갤러리 초대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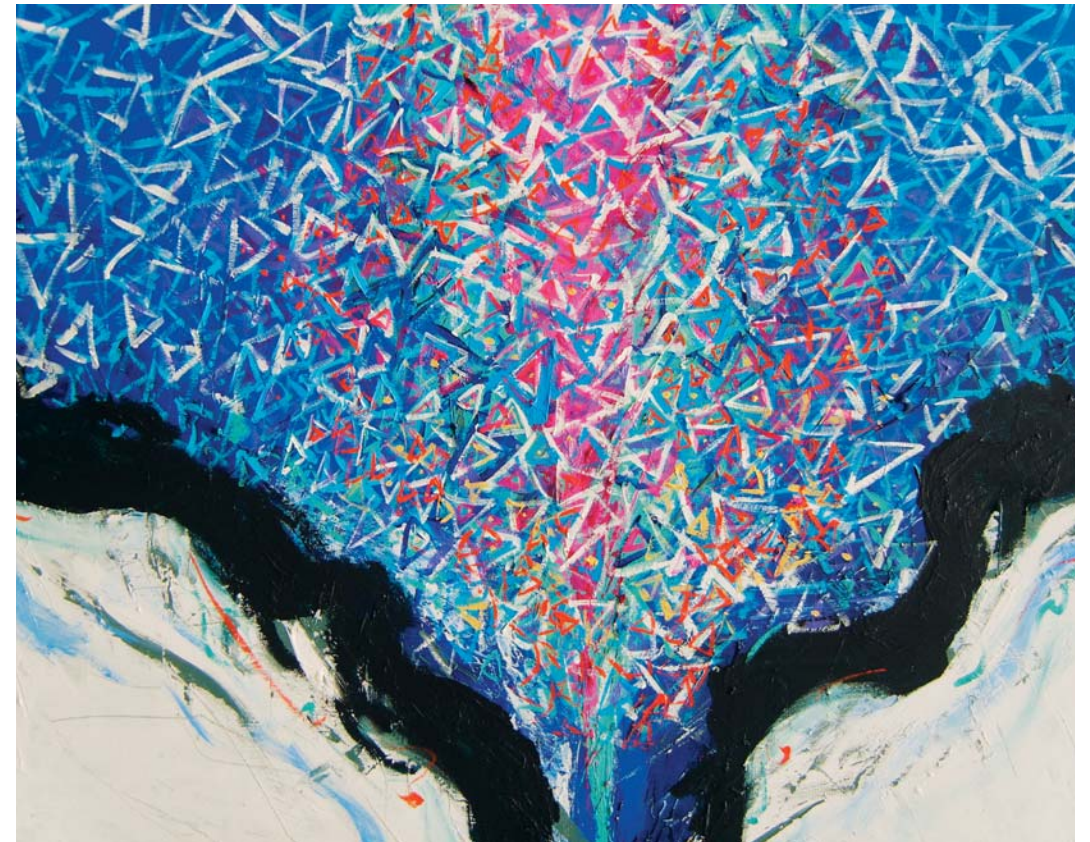
황보 귀 동

INVITING EXHIBITION BY HWANGBO, KUY-DONG



황보 귀 동 (皇甫 貴童 / HWANGBO, KUY- DONG)

- 개인전(초대포함) 12회(서울, 부산, 울산)
- 국제아트페어 1회
- 한국의美 와 心전 / 한일작가교류전/BEAF-2008에코국제현대미술전 / 한국,인도예술페스티벌 / 국제현대미술회 벽을 넘어서전 / 태평양을 건너서-오늘의 한국미술 한국현대미술독일초대전/광주비엔날레특별전 '인간의 숲, 회화의 숲' / 갤러리자미원초대전 'never ending story' 등 국내외 초대전 및 단체전 240여 회
- KBS 2TV 「드라마 시티」서양화 협찬
- KBS 1TV 「부산 아침마당」, 「문화 스페셜」 서양화 제공
- 다산센터멀티스타(포스코 간접미술장식품 공모 당선)
- 각종 전시·축제 운영위원 역임
- 현 한국미술, 청색회, 한일작가교류회, 예술문화사랑회 회원, 성일여자고등학교 재직, 동주대학 출강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60-1 성일여자고등학교
- T. 051-206-8171 C.P. 019-525-0017
- E mail. maxi.m17@hanmail.net



acrylic color, 91x73cm, 2008

Confusing Abst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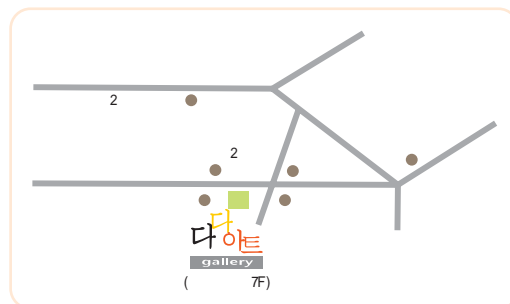
2008. 8. 28(목) - 9. 3(수) : 7일간

OPENING 행사 생략합니다.
관람시간 : AM 11:00~PM 6:30



다아트 gallery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1 마리나센터 7F
TEL : (051)744-2660
E-mail : gallery_dada@naver.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gallery_dada



후원 : 신일D&P



acrylic color, 53x46cm, 2008

작가를 모시면서...

황보귀동 작가의 그림 속엔 색과 선과 면이 자유분방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색은 서로 다투지 않고, 면은 선의 유희에 자리를 내어주고, 선은 거친 호흡으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은 추상과 유희의 지적 만남을 통하여, 작가의 내면세계를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적 쾌감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작가의 오랜 미적 탐구에서 비롯되었지만, 작가와의 만남을 가져본 사람은 그의 작품세계를 쉽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리는 작가의 캔버스가 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은 작품 속의 이미지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창작의 유희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다아트 갤러리에서 황보귀동 작가와 함께 추상적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 8, 27
갤러리 다다아트 관장 이재익

Confusing Abstraction

I. 나이들

누구나 한때는 건강하고,
누구나 한때는 어리고 순진했다.
누구나 한때는 사랑에 가슴 아프고,
누구나 한때는 그리움을 배운다.

세월이 지나
더 이상 건강하지도 않고,
더 이상 순진하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에 가슴 아플 일도 없다.
지금은 아름답지도 않으며,
이제는 그리움도 지워 버렸다.

세월의 무게는 그렇게 다가온다.
무엇인가 남아 있을 것 같아 찾아보면,
베품을 가장한 과시욕,
나눔을 가장한 위선,
사랑을 가장한 탐욕,
세월에 대한 회한,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만이
가슴 가득, 머리 뻘뻘 자리하고 있다.

나이들은 결코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비겁함이며, 웅졸함이고, 이기적이며, 몰이해인 것이다.

참는 것도 가식적이고, 믿음도 힘이 없다.
의리는 사라지고 비겁함만 남았다.

건강은? 사랑은? 순수는?
그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는가?
아직도 존재는 하는가?
흔적이라도 남아 있는가?

허무하다, 혼란스럽다.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할 수는 있을까?

II. 추상을 보는 눈

누구에게나 추상은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어렵다.
미리 답을 머릿속에 두고 보니 더욱 그렇다.
구체적인 대상을 보는, 또는 표현하는 것에 길들여져 더 그럴 것이다.
세상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추상의 의미에 무척이나 어울린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일 수는 없다.
일상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씨름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린 매일 추상과 함께 산다.
가장 인간적인 삶속에 추상이 배어져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이 익숙치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게 된다.

'이게 그림이야?' '왜 이렇게 그려요?' '무슨 뜻이 있나요?'
'나도 그려겠네' '낙서야냐?'

추상은 어떤 장르의 그림보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지극히 원시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감각적이고, 솔직한 자아의 표현이다. 그래서 추상을 볼 때 거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II. 혼란스러운 추상

쉬운 게 없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나이도 변하고, 세월도, 세상도 변한다.
한때의 가치도 변하고, 의식도 변한다.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순수이다.
그래도 모든 것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약속도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추상을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혼란스럽다. 무엇이 진정한 추상의 의미인지...
세상의 것들이 - 사람이, 질서가, 약속이, 관계가 - 정돈되지 못한 시대에 혼란스러움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머리는 혼란 속에 있는데 그림은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형태도 나타나는 듯하다.
아이러니다.

어차피 인생이 아이러니 아닌가?

2008. 여름. 황보귀동



acrylic color, 33x24cm, 2008



acrylic color, 65 × 53cm, 2008



acrylic color, 46 × 38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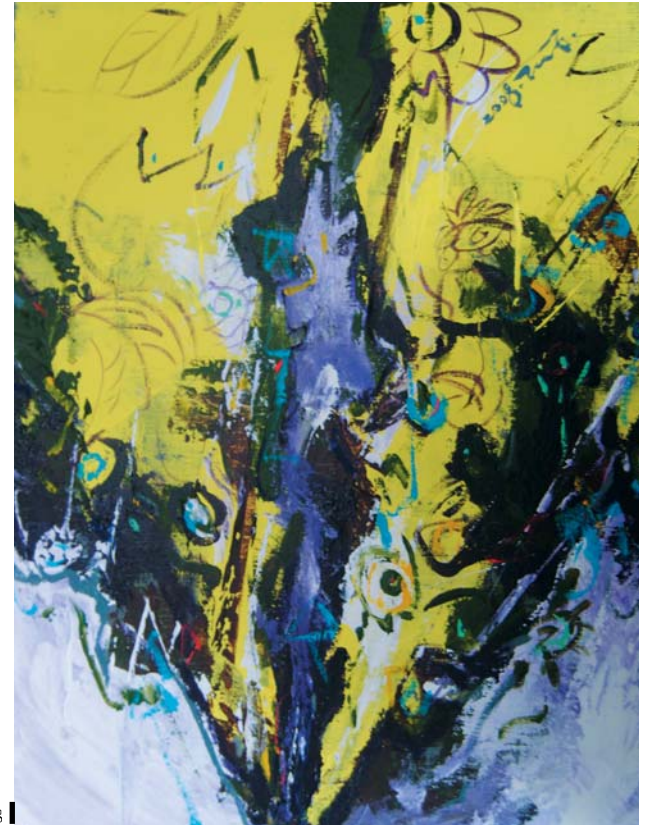
acrylic color, 46 × 38c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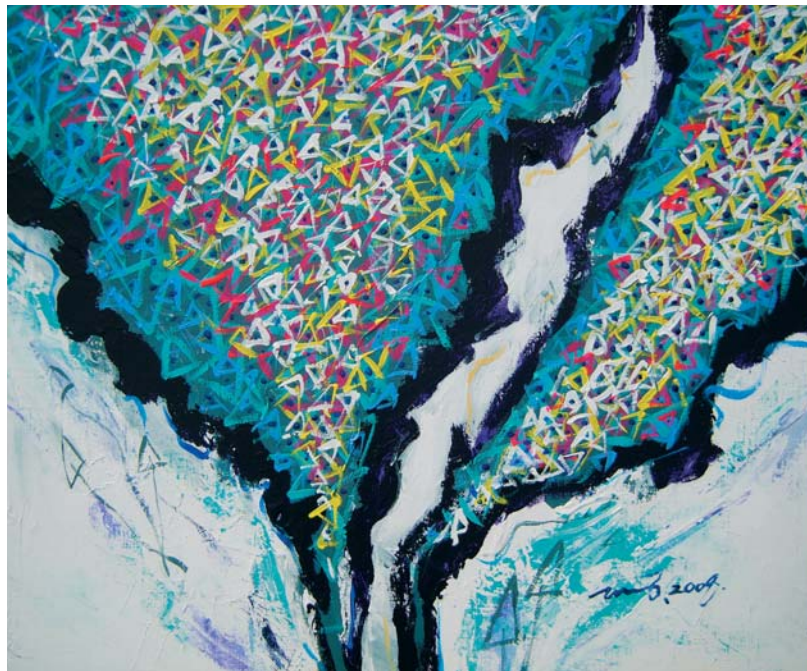
acrylic color, 46 × 38cm, 2008



acrylic color, 53×46cm, 2008



acrylic color, 32×42cm, 2008



acrylic color, 53×46cm, 2008



acrylic color, 46×38cm, 2008